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2)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배치(La Distribution)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by Kim Mi-Sang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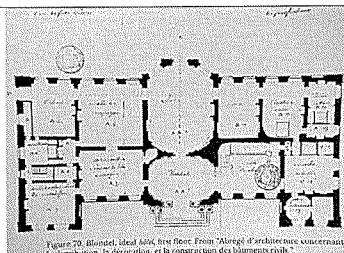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E-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E-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도시저택(Hôtel)과 시골저택(Maison de Plais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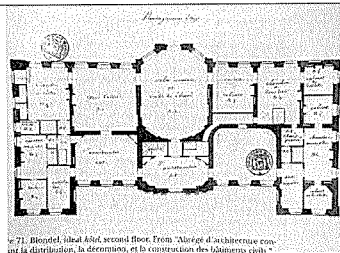
Jacques-François Blondel(1705-1774)은 실제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명성을 얻은 건축가는 아니지만 건축에 미친 그의 영향은 지대하다. 그는 건축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자로서 명성을 떨쳤으며 그의 건축논문은 건축 이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743년이 되어 그는 Académie D' Architecture(건축원)에 대하여 사립 건축학교를 설립하여 비록 재정적으로 성공은 거두지 못하였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학교의 소속되었던 건축가들로 Boullée, Ledoux, de Wailly 등의 뛰어난 인물들이 있다. 1755년 Blondel은 Académie의 회원이 되었고 1762년부터 건축교수가 되었다.

Jacques-François Blondel은 학문적으로 그리고 저술에 있어서 광범위한 유산을 남겼다. Briseux(브리세)의 책이 출간되기 수 년 전에 Blondel은 교외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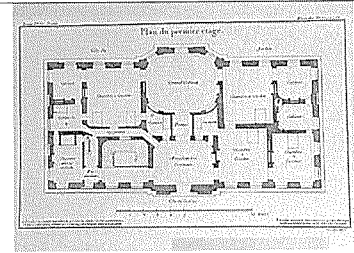
1) 직역을 하자면 '쾌락' 또는 '즐거움의 집의 배치 및 일반 건축의 장식에 관하여'라는 뜻이다. Blondel을 비롯한 18세기 이론가들은 '즐거움의 집(Maison de Plaisance)'을 전원 혹은 시골의 저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2) 프랑스어에서 '호텔(Hotel)'은 일반적으로 대저택 또는 관공, 관용 건물 등을 가리킨다. Blondel의 책에서 Hôtel은 도시의 대저택을 지칭한다.



〈그림 1〉 J.-F. Blondel: 이상적 Hôtel 1층 평면, Abrégé로부터 발췌



〈그림 2〉 J.-F. Blondel: 이상적 Hôtel 2층 평면, Abrégé로부터 발췌



〈그림 3〉 J.-F. Blondel: Maison de Plaisance 1층 평면, De la Distribution에서 발췌

(Maison de Plaisance)¹⁾에 관한 2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Blondel은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데 '외부의 Decoration(장식)은 내부의 Distribution(배치)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주택은 도시와 전원 또는 시골의 것으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명칭을 갖는데 도시의 Hotel²⁾과 전원의 Maison de Plaisance로 대별되는 프랑스의 개인 주거는 1730년경 체계화되어 이어 내려와 그 전통과 평면구성방법은 20세기의 건축에도 존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18세기 프랑스의 Hôtel은 영속적인 유산으로서 모던 및 현대의 서양건축에 참가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주거 양식, 즉 Hôtel은 명확한 분절(Articulation)과 위계로써 공간을 분류(Classify)하고 배치하려 하는 프랑스 고유의 특유한 시각, 정신적 성향 또는 사고 방식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ôtel에서 구현된 사회적, 건축적 시스템은 모던건축의 기능적 디자인의 기원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분류학적인 정신 및 공간의 상징적 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전부터 개인의 생활과 Privacy를 갈구하던 경향이 이어져 내려와 Louis 14세 말기에는 일반화되었고 드디어 1715년의 Louis 14세의 서거 바로 직전에는 궁정생활에 있어서의 지루하고 답답한 의식에 반하여 사적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의식혁명이 일어났다. 그 결과 건축계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고도로 압축된 평면구성을 하게 되어 Louis 14세 이후의 로코코식 저택(Hôtel Rococo)은 Louis 14세시대의 주거에 비하여 같은 공간 내에 두배나 많은 실을 배치하게 되었고 각 실(室)마다 특수하고 고유한 성격을 부여하여 지정하는 평면구성방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같은 평면구성의 방법론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la Distribution'을 들 수 있다. 18세기의 프랑스의 건축가들은 전대 17세기 선배 프랑스 건축가들, 그리고 Italy의 Renaissance 건축가들에 비하여 훨씬 더 조직적이며 합리적,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훨씬 효과적인 건축을 하고 있다고 긍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긍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든 Design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la Distribution'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la Distribution'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되어 Blondel 또는 18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londel 자신은 '쥘 아르두앙 망사르(Jules Hardouin-Mansart)'가 '끌라니'성(Château de Clagny: 1676)에서 'la Distribution'의 모범이 되는 계획을 제안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la Distribution'이 Briseux의 'L'Art de Bâtir des Maisons de Campagne

(시골의 저택을 건축하는 기술)' 또는 '르 까뮈(Le Camus)'의 'Génie de L'Architecture (건축공학)'³⁾와 같은 아주 다른 내용의 저작물 등에 의하여 고취되어 이론적 전통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게 된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이다. 이에 따르면 각 실은 분화되고 각 실이 지니는 실 고유의 성격이 강조되었는데 Blondel은 적어도 6개 종류의 침실(室)을 구분한 반면, 그 당시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la Distribution의 방법을 연구하기보다는 각 실의 상호관계 및 복도를 연구하는 것이 더욱 유행하였다.

'la Distribution'의 디자인 방법론을 채용하는 건축은 과시(Display)와 은거(Retreat)의 2가지 상극적(相極的) 측면이다. 이것은 선대(先代) 바로크와 로코코에서 요구되던 전통적인 장려함 및 화려함의 필요성과 아울러 사회적으로 요구되던 은밀함과 안락함의 새로운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로코코에서의 경험이 내부 배치 방법의 발전과 결합되어 표면엔 화려하고 장려한 Façade, 후면의 내부 배치는 밖의 세상과 격리된 조용한 은거의 공간을 배치하게 되었다.

Blondel의 'De la Distribution des Maisons de Plaisance et la Décoration des Édifices en Général'과 C.-E. Briseux의 'L'Art de Bâtir des Maisons de Campagne(시골집의 건축술)'은 18세기 중반의 Hôtel의 개념을 약속하고 있으며 1760년대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Hôtel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Appartement de Parade, Appartement de Société, Appartement de Commodité로 구분되는 3가지 유형의 주거양태 또는 주거의 유형(Type)으로 분류된다. '파시의 주거[공간]'이라는 뜻의 Appartement de Parade는 규모가 비교적 작긴 하지만 외부의 타인을 향한 파시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으로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아침에 만나는 곳, '교제의 주거[공간]'인 Appartement de Société는 가족과 친구들을 맞고 담소하며 생활하는 단란의 공간으로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곳, '쾌적의 주거[공간]'인 Appartement de Commodité는 주인 또는 주부가 겨울, 기분이 언짢거나 내키지 않을 때 물러나는 곳, 또는 집안 일을 위해 의존하는 장소로 프라이버시가 가장 보장되는 곳으로 재충전과 명상 등을 위한 공간이다.

3) 본 프랑스어판은 1992년 영어로 번역되었다. de Mézière, Nicolas Le Camus (Britt, David 역): 'The Genius of Architecture: or The Analogy of that Art with our Sensation, the Getty Center for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 Santa Monica, 1992.

평면 및 공간의 분석을 위하여 Blondel의 Hôtel Idéal(이상적 오델)과 Maison de Plaisance(시골 집)의 예를 들어보자. 두 평면 모두에서 식당은 완충실들로서 공간이 구별된다. 이 방들은 다각형, 계란형, 원형 등의 형태를 하고 있다. 평면에서는 흡연실과 당구실 등의 오락공간이 배치된 것을 읽을 수 있지만 사실상 건축가는 이런 여가의 공간보다는 주로 Service와 Convenience(편의성)의 안배에 더욱 전념하였음을 알 수 있다. Blondel과 Briseux의 시골집을 비교하면 Blondel의 의도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평면에서 극도로 다른 두 건축가의 견해 즉 Briseux는 복도와 통로의 사용을 옹호한 반면 Blondel은 Dégageement과 계단의 사용을 주장함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두 건축가는 건물에서의 편의성(Convenience)을 보장하기 위하여 Service에 관한 모든 System들을 연구하였다는 공통점에서는 당시의 기능적 건축에 대한 일반적 성향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건축에서 실(室)들의 여러 다양한 형태들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편의성을 위하여 취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평면에 있어서 그것들은 '데기추방(Dégageement)'⁴⁾을 형성하는 잉여공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다각형의 형태가 불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건축사가 Hautecoeur는 la Distribution의 방법으로 인한 다각형의 실을 평면에 채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1769년 Pierre Patte의 걱정을 자기의 저술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지난 40년간에 걸쳐 완전하게 된 la Distribution의 방법은 구조적으로 볼 때 Appartement들을 좀 더 안락하게 만든다는 구실하에 거의 모든 평면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만드는, 많은 수의 방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를 다루는 것 이상의 문제였다. 그 결과로 각 층마다 각기 다른 구조적 조건들이 생겼고 하나의 Appartement가 다른 것 위에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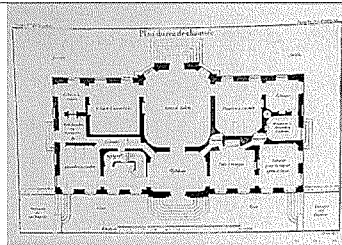
떻게 배치되는지 추측하기 어렵게 되었다.'⁵⁾

Blondel의 'Cours'는 선배 D'Aviler의 모델을 명확히 따르는데 그의 책과 마찬가지로 Site Plan으로부터 욕실 및 화장실을 포함한 다양한 실들의 Detail에 이르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Briseux를 Blondel에 비교한다면 L'Art de Bâtir는 무미건조하고 Site Plans과 Detail을 제시하지 않아서 단지 고도로 합리화된 고립된 한 덩어리의 건축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로코코 건축의 요약으로 간주되는 이 두 건축논문은 로코코 건축과 그것의 새로운 대체물, 즉 신고전주의의 건축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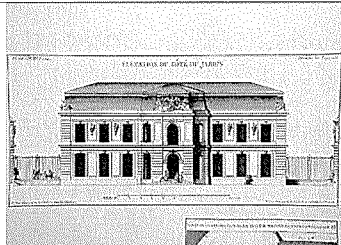
1750년대에 시작된 로코코의 과다함에 대한 일반적으로 심했던 반동은 프랑스의 건축과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까지 이전시대의 대부분의 건축가들 즉 Courtonne (1793), Aubert (1741), Oppendorft, Jacques Gabriel, 그리고 Moller (1742), Meissonier (1750), Boffrand (1754), 그리고 Cartaud (1758) 등의 건축가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1752년과 1756년 사이의 Architecture Françoise에 실린 Blondel의 논문은 로코코 Hôtel의 시대로부터 출발하여 고전적 모델을 재확인하고 '스펠 로카이(Style Rocaille)'⁶⁾를 거부함으로써 이전의 논문들이 그러하듯이 어느 정도는 신고전주의의 등극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 방법론상 la Distribution은 Salon을 중심으로 거실이나 연회실 등의 공적인 방들을 십자로 교차되는 축위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사적인 실들은 공적인 용도의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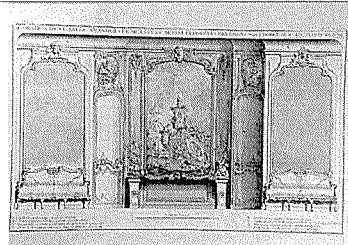
4) Dégageement은 방 사이의 통로, 출입구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는 주로 벽체가 두꺼운 전통 조적식 건물에서 실과 실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개의 경우 얇은 길이의 통로를 말한다.
5) Hautecoeur, Architecture Dassistique, 3권 p. 200. Dennis, Michael: Court and Garden, MIT Press, Cambridge(Massachusetts), 1986. p. 118 재인용
6) Louis 15세 시대의 로코코 양식



〈그림 4〉 J.-F. Blondel: Maison de Plaisance 2층 평면, De la Distribution에서 발췌



〈그림 5〉 J.-F. Blondel: Maison de Plaisance 입면, De la Distribution에서 발췌



〈그림 6〉 J.-F. Blondel: Maison de Plaisance 식당 내부 입면, De la Distribution에서 발췌

들에 비하여 높이가 낮고 십자축 배치의 규칙에서 벗어나며 자주 드나드는 방들로부터 되도록 먼 곳에 배치된다. la Distribution 가운데 세부규칙으로서 '엥필라드(Enfilade)'⁷⁾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적인 용도의 실을 통로 없이 잇달도록 배치하되 각 실의 방문(Door)을 일직선의 축상에 정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Enfilade는 건물의 길이를 관통하고 벽이나 계단실 등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에 따르면 Enfilade를 축으로 하는 View가 막힘없이 한 단부로부터 다른쪽의 단부로 이어지게 된다. 각 실 사이에는 회랑이나 통로가 없이 곧바로 방과 방이 연이어 배치되므로 이런 방들의 구성은 '엥 스위트(en Suite)⁸⁾'라고 명명되었다. Blondel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듯 Enfilade는 la Distribution의 범칙을 구성하고 있다:

'la Distribution의 일반법칙은 건물의 길이를 관통하여 주(主) Enfilade를 유지토록 하는 데 있다.'⁹⁾

<그림 3>과 <그림 4>에 있어서 1개의 수직방향 Enfilade, 2개의 수평방향 Enfilade로 구성되는 3개의 Enfilade가 있다. 수직방향 Enfilade는 Grand Salon과 Vestibule을 통과하므로 1층의 가운데 축을 통과하여 정원으로 연결된다. 상부 Enfilade는 Cabinet à Écrire(집필실)로부터 시작하여 Cabinet D'Assemblée(모임실), Grand Salon(대살롱), Chambre à Coucher(침실)를 지나 작은 Cabinet를 통과하며 양측면의 창을 통하여 외부로 연결된다. 각 실마다 Door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수평의 Enfilade를 만듦으로 평면의 장축방향을 꿰뚫고 있으며, 건물의 척추쪽으로 정원의 Façade를 뚫으므로 일련의 창문들이 배치되어서 충분한 채광조건과 시각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Enfilade의 조건 중 하나는 가능하면 그것이 언제든지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주거일 경우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못할 경우가 흔히 있다. 즉 측면에 면한 타건물과 공유하는 Party Wall 등에 의하여 측면의 Enfilade가 중단될 경우에는 인공대체물인 거울로써 이 조건을 연출한다. 당시 en Suite방식에 따라 일렬로 배치된 모든 방들을 가로지르는 Enfilade에 의한 내부 경치의 연출은 중요한 미적 출처의 원인이었다.

여기서 수평축 방향으로 2개의 Enfilade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수직 Enfilade로서는 중앙의 Grand Salon과 Vestibule을 관통하는 것만이 유일하여 다른 부분에서는 Enfilade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Grderobe(의상실), Dégageement들이 수직방향 Enfilade의 조성을 방해하고 있

기 때문인데 이 공간들이 두 수평 Enfilade 사이에 배치되어 공간을 상하, 즉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다. 수평 Enfilade는 Salon의 중앙을 통과하는 이상적인 축의 교차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Salon이 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을 때 Enfilade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중앙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Blondel 자신의 규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Blondel은 1층의 Grand Salon과 2층의 Grand Cabinet의 벽난로를 중앙에 배치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다른 방의 창들을 외벽에 바짝 배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Enfilade가 한편으로 치우쳐 Distribution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대신 Grand Salon에서는 정원 쪽에 면한 벽을 밖으로 약간 돌출시킴으로써 실의 방향성을 증진시키고 Grand Salon으로부터 외부 정원으로의 공간성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방의 배치는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Enfilade의 규칙에 따라서 엄격히 배치되어야 한다. 현관(Vestibule)은 정확히 출입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출입구는 후위의 Salon과 연결되어야 하며 측면으로는 Grand Escalier(대계단)와도 연결되어야 한다. 석조계단으로 구성된 이 실(Grand Escalier)은 의도적으로 현관에 통하도록 계획되어 출입구의 연장공간으로 구상되었다. Grand Escalier는 공공영역의 일부로 사용되기 때문에 뒤에 감추어진 작은 서비스 계단에 의하여 이르는 중이층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지층으로부터 2층까지 직접 연결된다. 서비스 계단은 편리를 위한 계단이며 Grand Escalier는 과시를 위한 주요 오브제로서 석조세공이 되었으며 및 천장은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Grand Escalier는 사교의 공간인 Salon을 Grand Cabinet(大私室)에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Salon으로부터 2층의 Antichambre Commun(공적 용도의 결방) 및 당구대 등을 놓게 되는 Grand Cabinet에 연결하는 Grand Escalier는 두 사람이 대화를 중단함이 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한다.

평면에서 Blondel이 주장한 Appartement의 3가지 유형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계단을 제외한 과시의 공간에 속하는 Appartement de Société 및 Appartement de

7) Enfilade는 일련(一連), 한 줄기, 연속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18세기 프랑스의 건축에서는 공적인 용도의 방을 일렬로 배치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8) 프랑스어의 en Suite는 영어로 직역하면 in Suite가 되겠다. Suite는 대저택, 궁전 등에서 방여럿이 잇따르는 특채같은 한 벌의 방을 말한다. 참고로 프랑스어 en Suite는 '곧 이어', '다음에'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9) Blondel: Abrégé, <그림 5>

'[T]he general laws of la distribution consists in maintaining the principal enfilades throughout the length of the building.' in Etlin, Symbolic Spa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London, 1994. p.

Parade의 두 가지 유형은 Salon의 좌우양쪽에 배치되어야 한다. Blondel은 오후에 친지의 방문을 받는 Cabinet D'Assemblée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Appartement de Société의 공간을 왼편, 그리고 오전에 사업방문자 등을 맞는 Appartement de Parade를 오른편에 배치하였다. 평면의 오른쪽 하단부에 위치한 Cabinet Pour se Eetir Après le Repas(식사 후 물러나 쉬기 위한 작은 방)는 활기 넘치는 장소로부터 식사를 물리고 난 후 가족 및 손님들과 담소와 차를 즐기는 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격리된 장소로서 소유자의 사적 생활공간으로서 Appartement de Commodit 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이 평면에서 각 실의 중요성 및 크기에 따른 어느 정도 느슨한 위계질서를 읽을 수 있다. 공공실(公共室)로는 Salon(살롱), Salle(방) 및 Cabinet(작은 방); 서비스 공간으로는 Antichambre(결방)와 Garderobe(의상실); 그리고 침실을 구성하는 방들로서 Chambre à Coucher(침실), Cabinet à Coucher(소침실), Chambre Avec Lit en Niche(벽감에 침대가 놓여진 방) 등이 그것으로 대공간과 소공간, 공적인 용도의 공간과 사적인 용도의 공간, 사교의 공간과 비사교의 공간 등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주택을 위한 단일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서비스 공간들은 각 Suite¹⁰⁾가 번잡함이나 소음 등으로 방해받지 않고 쾌적함(Commodity)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다. 이처럼 용도 및 중요성에 따라 공간에 기능성을 부여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방을 조합하는 시골의 Maison de Plaisance 또는 도시의 Hôtel은 그것을 디자인한 18세기 건축가에게는 궁지가 되었으며 소유자에게는 자랑거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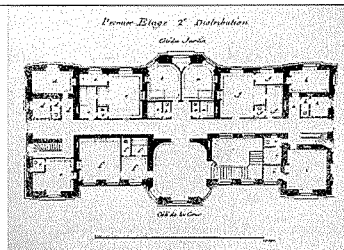
Blondel은 이론상 방이 지닐 수 있는 상이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 Salle D'Assemblée(모임방), Salle du Dais(천개가 있는 방), Dalle de Conseil(회의실), Salle de Bal(무도실), Salle de Concert(연주회실), Salle de

Festin(연회실), Salle à Manger(식당) 및 Salle de Compagnie(응접실)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예시되고 있는 주택에서는 단지 기본적인 기능만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Blondel은 Appartement을 구성하는 여러 실 즉 Vestibule, Salon, Antichambre, Salle de Compagnie, Salle D'Assemblée, Gallerie 등을 연구하였다. Blondel은 각 실의 용도와 안락성(Commodit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수없이 하였는데 여기서 안락성(Commodité)은 적함성(Bienséance)의 법칙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주택에서 Salon의 천장고는 식당 천장고의 2배가 되며 Party실로써도 쓰였다. Abrégé에 예시된 Hôtel Idéal(이상적 Hôtel)의 평면에서 Appartement de Sociét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Salle de Compagnie가 주어졌으나 상대 요소인 Appartement de Parade에 속하는 Salle D'Assemblée를 찾을 수 없다. 단지 좀 더 작은 Cabinet(B-10)이 그러한 기능을 대신하도록 지정되었다. 반면 Maison de Plaisance에서는 Cabinet D'Assemblée가 주어졌으나 Salle de Compagnie(또는 Cabinet de Compagnie)는 생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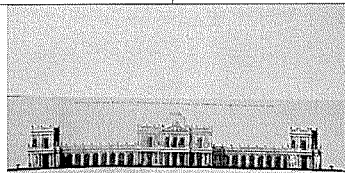
Appartement de Compagnie는 낮은 천장을 하고 있으며 중층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듯이 배치되어 Appartement de Société의 즐거운 분위기로부터 떠나 조용한 내밀의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아늑한 분위기의 것이다. 따라서 과시와 은둔의 양극성으로 대변되는 Hôtel의 성격은 이 중층의 배치로 인하여 한층 더 극대화된다.

층에 따른 내부 Zoning 역시 간파할 수 있는데 관습적으로 1층은 사교, 단란과 공적인 공간이 주로 배치된 반면 2층엔 사적인 Suite들의 배치에 집중되었다. Abrégé에 예시된 Hôtel과는 다르게 Maison de Plaisance에서는 복도(Couloir 또는 Passage)없이 평면을 꾸미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에 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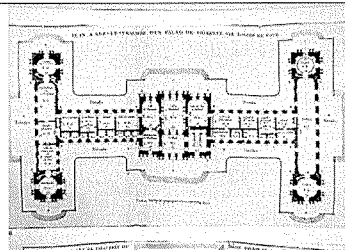
10) 일반적으로 대저택 또는 호텔 등에서 방 여럿이 잇따른 독재를 일컫지만 18세기의 Hôtel등에서는 문(Door)으로 실이 서로 연결, 통하여 묶여지는 일련의 공간단위를 말한다.



〈그림 7〉 Ch.-E. Briseux: Maison de Plaisance 2층 평면, L' Art de Bâtir에서 발췌



〈그림 8〉 J.-F. Blondel: Palais de Soixante-Six toise de Face 입면, Cours에서 발췌



〈그림 9〉 J.-F. Blondel: Palais de Soixante-Six toise de Face, H자형 1층 평면, Cours에서 발췌

여 각 실 사이에 긴 통로가 생긴 것이 발견되는데 굳이 Garderobe(의상실) 또는 숨겨진 서비스 공간인 Dégagement 등으로 명명한 것은 평면에서 발생한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듯하다. Blondel의 생각에 의하면 주택건축의 복도는 그 용도의 관점에서 볼 때 건축의 질과 품위를 실격시키는 불리한 점을 지니고 있고 평면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복도를 반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복도에 면한 방에서는 하인들의 통행 및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안락한 분위기와 휴식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당대에 복도의 사용을 가장 뛰어나게 구사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인 Briseux는 비평가들의 주장처럼 공간을 낭비하는 헛된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Briseux의 주장에 의하면 복도는 공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 뿐 더러 그 측면에 서비스 계단을 뚫음으로써 시끄러운 통로를 침실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으며 Blondel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별도 층계 및 곁방보다도 오히려 훨씬 적은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들에게는 이 서비스 부분이 오히려 음향상 완충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시기의 평면, 특히 1층의 평면을 비교하면 건축가는 Salon을 중심으로 마치 나무가 발육하여 나오듯 밖으로 향하여 위계적 배치를 하였으며 전체 실배치에서는 각 실이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상호 교통하는 유기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시각 하에서 건축이 검토된다면 성공적인 Distribution은 각 실에 상이한 형태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있어서 밀집하게 모든 방을 배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Palais, 그리고 건축 유형론적 방법으로서의 Distribution

18세기 건축이론의 선배격인 D'Aviler가 아직 그의 저서 Cours에서 이상적인 Hôtel의 평면을 제시하는 것에 만족한 반면 그 후대의 사람들은 주로 내부배치에 관한 이론들을 내놓았다. 이런 이론들의 변천에 따라 건축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각 실(室)들은 용도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이전의 바로크와 로코코에서 보여지던 화려함과 호사성의 중요성은 제외되고, 친밀성과 안락함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건축이념이 발달한 결과 Distribution의 내용은 점점 더 복잡해져서 외부와 내부의 관계를 조화,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강박관념이 되었다. Blondel에게 있어서 합목적성(Convenance)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제거할 수 없지만 서로 양립될 수 없는 항목들을 조정, 화해하는 방법

을 가리키곤 한다. 자신이 집필한 Cours D'Architecture에서 Blondel이 집착한 문젯거리는 건물과 내부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맥락 하에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Distribution des Maisons de Plaisance와 Architecture Française에서는 이미 체득한 Distribution에 관한 지식을 예증과 설명을 통하여 체계화하여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Cours에서는 합목적성, 대칭 또는 비례와 같은 배치(Ordonnance)를 지배하는 주요 개념들을 건물 내부에 구현함 등으로 원리원칙의 입안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Distribution에 적용되는 비례에 관한 항목으로서 '각기 상이한 직경과 그 용도에 따라 건물의 실들에 각기 다른 높이를 부여하여 그것들의 길이와 폭의 관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있다. Blondel에게 있어서 Distribution은 평면을 다루는 기술은 이전에 벽, 장식의 요소가 되는 Façade 등을 다루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기술이 되었다.

Cours에서 Enfilade와 대칭의 실배치를 각별히 취급하고 17세기에 애호되었던 Galerie들을 Hôtel의 익부에 배치함으로써 Distribution은 고전주의의 시대 건축과 Bourgeoisie 시대의 안락한 건축 사이에 위치한 전통적인 성질의 건축요소가 되었는데 Hôtel이나 Maison de Plaisance와 같은 일반 주택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Palais(궁전, 대저택)에 관한 기술 역시 흥미를 끈다. 그의 건축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Blondel은 Palais des Soixante-Six Toise¹¹⁾ de Face(전면이 66뜨와즈인 궁전)의 계획안을 제시하는데 이 계획안은 대규모 건물을 위한 것으로 전통적 디자인의 개념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한 Distribution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案)은 아주 단순한 방식의 이태리풍으로 계획되었다. 전면에 Vestibule이 배치되고 그 후면에 커다란 Salon, Salon 좌우로 커다란 방 2개, 전면 좌측엔 '에스칼리에 도뇌르(Escalier D'Honneur)'¹²⁾ 등이 중앙부에 위치한 반면 Galerie들은 건물의 익부에 배치되었다. Cours에서 Blondel은 과거의 건축개념인 장식(Décoration)을 Distribution과 양립,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계획안은 H형태의 평면으로서 주로 외부의 형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에 U자 형태의 계획안은 그와는 상반되게 Appartement의 배치에 더 많은 무게를 실는다. Décoration과 Distribution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에 있어서 Blondel은 때때로 내부를 희생할 줄 알

11) 뜨와즈(Toise)는 옛 측정단위로 1 Toise는 1,949m이다.

12) 문자 그대로는 '명예의 계단' 또는 '영예의 계단'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궁전이나 대저택 등에서 발견되는 호화롭게 장식된 대계단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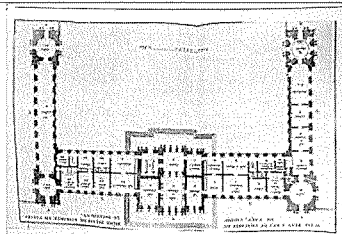
아야 한다고 확신하며 외부배치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Décoration은 때때로 Distribution보다 우세하게 취급됨을 알 수 있다.

합목적성(Convenience), 대칭, 그리고 비례와 같은 전통적 개념이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 해석됨은 이와 같은 생각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Décoration과 Distribution사이의 관계 그리고 Distribution의 개념이 Décoration에 종속됨은 건물의 Façade 구성에 관한 아이디어까지 이어짐이 발견된다. 위계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Façade는 Enfilade의 연출에 있어서는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단계적, 점층적 배치 및 구성으로 해석되었고, Façade의 수평 및 수직 연출은 내부공간에 있어서 엄격한 분할구획(Partition)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Cours의 Palais는 필요한 실들의 목록을 열거하고 평면계획으로 구현함으로써 주거건축에 필요한 모범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Palais의 평면계획은 마치 주거건축을 위한 모범 Catalogue와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작은 규모의 일반 주택은 본 궁전 계획안으로부터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 부분만을 조합함으로써 완성할 수 있다. 즉 Palais로부터 가장 단순한 주거에까지 하나의 정답이 있게 되며 스케일에 따른 변주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아마도 18세기의 유럽 건축계가 발명한 것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전의 건축에서 보이던 스케일의 불연속성을 동일한 단일 위계로써 대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Blondel의 건축사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나 그 기관의 거대 규모의 생활을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 개인의 생활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빈자들의 주거는 어떠한 것이 되었든 궁전이나 대저택의 한 조각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Laugier의 Cabane Primitive¹³⁾(원시주거)에 건축요소를 첨

가하는 것으로 왕족의 주거를 만들기에 이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후술할 Ledoux는 Laugier가 그리하였듯이 Doric양식의 보호처를 세우는 대신 가난한 사람을 단지 나무 밑에 있도록 묘사함으로써 Laugier의 환상을 좇기를 포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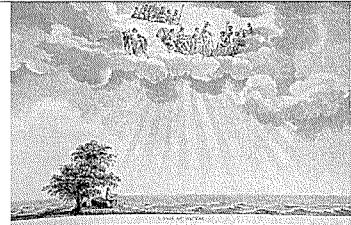
13) Cabane Primitive는 '태고의 오두막'이라는 뜻으로 문명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인류 최초의 주거로서 불필요한 부분이 완전히 배제되어 기둥과 대들보, 막공으로 구현된 근본주의적 사상의 오두막을 가리킴. 본문에서는 Laugier의 건축수상집(L'Essai sur L'Architecture)의 속표지 그림을 지칭함.



〈그림 10〉 J.-F. Blondel: Palais de Soixante-Six Toise de Face, U자형 1층 평면, Cours에서 발췌



〈그림 11〉 M.-A. Laugier: Cabane Primitive, L'Essai sur L'Architecture에서 발췌



〈그림 12〉 C.-N. Ledoux: 빈자의 피난소, L'Architecture Considérée에서 발췌